

“수제 가공식품 농가 롤모델 되고 싶어요”

원도 섬비디식품 김윤희 대표

2대째 청정·유기농 유자 농사
실생목에 토종 접목 향·즙 풍부
파우치음료 등 연 2억 고소득

청정지역 완도에서 2대째 유기농 유자 농사를 지으면서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이 화제다. 주인공은 섬비디식품 김윤희 대표(47).

김 대표는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면서 부모님의 유자 농사를 조금씩 도와 오다가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자 농사에 뛰어들었다.

이후 직접 생산한 최고급 유기농 유자차, 파우치 음료 등으로 연간 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유자를 가공할 때 껍질과 과육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

김 대표의 유자는 특히 실생목에 순수 토종 유자를 접목해 쓴맛이 적고 과즙이 풍부해 유자 향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자는 가시가 많아 열매숙이가 어렵고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리면 해거리, 동해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열매수 조절과 나무 세력 관리가 어려운 작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9~10월에 청유자를 수확해 열매숙이를 대체함으로써 유자의 품질과 생산성

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한 원료를 사용해 직접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늘 한결같이 인터넷 밴더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일반 제품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김 대표는 “유자 가공 명인이 되는 게 꿈이다”며 “유자를 활용한 융복합농업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수제 가공식품 농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중소규모 농가들이 농업소득에만 의존하면 농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가공·체합·관광과 연계한 융복합농업을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더 많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채민 기자



아태민족음악학회 부회장 이용식 전남대 교수 선출



전남대 이용식 국악과 교수(사진)가 최근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아시아태평양 민족음악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아태평양 민족음악학회(Asia-Pacific Society for Ethnomusicology)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14개국 음악학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음악학 학술단체이다. 이 교수는 2019년부터 한국 이사로 참여했고, 올해 이사로 및 총회에서 차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아리랑’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해 일제강점기 동안 이루어진 아리랑의 근대화, 국가화, 대중화 현상을 고찰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경찰청, 산업보안협 정기회의

광주경찰청은 최근 임용환 광주경찰청장과 나기수 산업보안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는 기업체·유관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기술보호 정책추진을 협력·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이 진행되면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해 신규회원 8명을 위촉했다.

나기수 위원장은 “이제는 기술개발 만큼이나 기술을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라며 기술혁신 자산을 가진 산업보안협의회 위원들에게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기술개발 10년, 유출 1초, 공들여 쌓은 기술 금지타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산업보안협의회 위원과 광주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달라”고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최환준 기자



농협광주본부·본랑농협,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본랑농협 동호판매장에서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생활체육위원회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2년도 생활체육사업 주요 실적 보고와 2023년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선정(안),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지원(안)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작년 전국 최초 북구반다비체육센터 개관, 특·광역시 최초 5개 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자치구 전환 배치 완료, 우수장애인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등 뛰어난 성과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올

해 1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시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질 높은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파크골프, 론볼 등 13개 종목 동호인클럽 28개 클럽에 운동용품, 시설이용료, 클럽매니저 수당 등을 지원한다. 자치구 생활체육 시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다방면 지원, 반다비체육센터 추가 건립, 장애인유형별 스포츠활동 지원, 장애인체육인증센터 연계기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화 기자



광주교도소, ‘청림 플로킹’ 캠페인

광주교도소는 최근 북구 일곡동 일대에서 ‘청림 플로킹’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림 플로킹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봄맞이 환경미화과 더불어 청림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직원·주민 간 청렴가치를 공유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교도소는 교도소 입구부터 일곡사거리까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약 3km 구간의 환경을 정비했다.

5개 조로 편성된 직원들이 1조씩 ‘자체 청림 공모전 최우수’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역봉사를 병행해 청림 홍보의 효과를 높였다.

/최환준 기자



광주대,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 초청특강

광주대학교는 지난 17일 호심관 1층 대강당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을 초청해 ‘살기 좋은 우리지역 미래와 발전방안’에 대한 초청특강을 실시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지역이 낙후됐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동차, 의료, 문화, 철강, 우주산업 등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무궁무진한 인프라를 갖춘 잠재력 있는 지역이다”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그러나 “인재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우리지역으로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콘텐츠가

발 아이디어가 부족한 때문이다”고 진단한 뒤 “자기 전공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본이고, 실력이다. 큰 목표를 갖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면 상상 이상의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시대는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지 않아도 창업, 스타트업은 통해 자신의 꿈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다”면서 “재학생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며 기업경영을 이끌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감동진 총장의 ‘신 기업가 정신’ 마인드에 큰 공감과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황애란 기자

광산구, ‘30리길 조성’ 22일 타운홀미팅

광주 광산구가 민선8기 대표시책인 명품 30리길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과 함께 성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소통의 장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22일 오후 2시 이야기꽃도서관 1층 너른마루에서 ‘광산시민에게 길을 묻다’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그동안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중심으로 주민의 불편 사항을 경청해온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광산구의 대표정책을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첫 시작은 명품 30리길 조성을 주제로 시민과 만난다. 명품 30리길은 송산근린공원부터 황룡강 장록습지,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동곡 두물머리까지 약 12km 구간을 걷기 좋은 광주의 대표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명품길추진단, 공원녹지과, 시민안전과, 기후환경과 등 명품 30리길 조성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정책 내용과 진행상황,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30리길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 자영업·건기 동호회 등 누구나 참여해 궁금한 점을 묻고, 의견,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광산구는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이번 타운홀미팅은 시민이 바라는 30리길 조성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소통의 첫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위해 시민에게 길을 묻고, 경청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전매게시판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내실곳 jndn@chol.com

알림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기본반 3개월(토/12회) 성인병 예방·치료, 가족주치

의. 문의 뜬사랑 광주교육원 062-521-3999, 010-4642-4779.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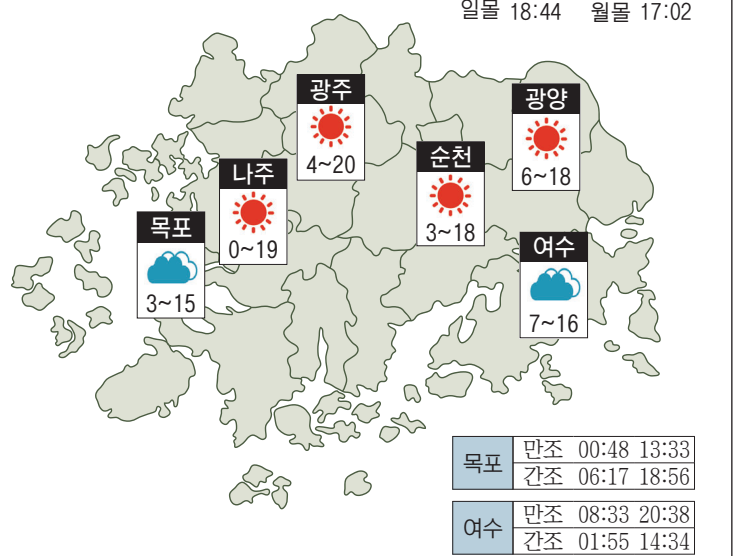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10-8602-0001.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정신건강·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

0199.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 학대 24시간 상담·진행 학대피해노인전용 상담운영. 1577-1389.

오늘의 날씨



장성	☀️ 0~19	영암	☁️ 0~19	완도	☁️ 4~17
담양	☀️ 1~20	진도	☁️ 2~15	강진	☁️ 1~18
화순	☀️ 1~21	신안	☁️ 3~15	장흥	☁️ 0~18
영광	☀️ 0~16	흑산도	☁️ 5~12	해남	☁️ 0~18
함평	☀️ 0~18	구례	☀️ 1~20	고흥	☁️ 2~17
무안	☁️ 1~17	곡성	☀️ 0~20	보성	☁️ 0~17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